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변은경¹ · 윤숙자² · 김경희¹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¹,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²

The Factors Influencing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Byun, Eun Kyung¹ · Yoon, Suk Ja² · Kim, Kyung Hee¹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Busan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Gyeongju University, Gyeo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to students who agreed to b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230 cases were finally analyzed.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using SPSS/WIN 18.0.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revealed in age, department of major, residential type and school year on employment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lso, employment stre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department of major were confirmed as a factors influencing on employment stress and accounted for 36% of the variance. **Conclusion:** Further studies that discover factors influencing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are needed, and also practical programs are necessary to decrease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Self-esteem, Major, Stres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안정된 정체감의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개인적 가치와 목표의 설정, 사회적 적응, 진로 결정 그리고 취업에 대한 준비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Park & Lee, 2013).

2012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1.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 비해 졸업하기가 수월해 입학생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생들의 자질

과 대졸자들의 과잉공급 문제에 따른 취업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Choi & Lee, 2013). 또한 경기침체와 사회 불안정 등 사회적 상황에 따른 청년실업 및 취업난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난이 심각하다(Shin & Cho, 2013).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고용동향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20~29세)은 8.1%로 전체 평균 실업률 3.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이처럼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대학생들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높은 취업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주요어: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

Corresponding author: Yoon, Suk J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Gyeongju University, San 42-1, Hyohyun-dong, Gyeongju 780-712, Korea.
Tel: +82-10-2565-8742, Fax: +82-54-770-5364, E-mail: yoonsj@gju.ac.kr

Received: Mar 30, 2014 / Revised: May 19, 2014 / Accepted: May 24, 2014

취업 스트레스란 취업 준비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를 이루어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을 느끼는 상태(Park & Lee, 2013)로 취업준비에 대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제안을 위한 연구보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반적 특성과 취업문제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실증적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Kim, 2003; Park, Kim, & Jung, 2009). 또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Park, Bae와 Jung (2002)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다루었고, Choi와 Lee (2013)는 심리적 증상, 신체증상과 자아존중감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Shin과 Cho (2013)는 구직기술,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학진학 시 적성이나 흥미 등 개인적 가치보다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 없이 합격이 가능한 성적이나 주위의 기대에 맞추어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이로 인해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심리적 갈등 및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Chang, 2005).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Kim & Ha, 2000)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유추한다.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취업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인이다(Lee, 2014). 간호대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차이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ark et al., 2002). 또한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2).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진로결정 상태의 결과로써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Jung와 Yang (2013)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상태 역시 안정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취업 스트레스가 함께 영향을 받아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대학생이 대학 진학 시에 자신의 미래나 전공에 대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장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권유나 입시성적에 맞추어서 진학하게 되면 전공만족도가 낮아지고 스트레스는 높아져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전공을 포기하게 된다(Ko et al., 2011). 이로 인하여 전공에 흥미를 잃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진로정체감에 혼란을 겪게 된다(Cho & Lee, 2006). Jeong과 Shin (200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ang과 Hwang (2013)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는 진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동안 대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Shin과 Cho (2013)의 연구에서는 성별, 전공, 학년, 월소득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Kim과 Choi (2012)의 연구에서는 학년, 전공계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Choi와 Lee (2013)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여가활동, 취업준비 만족, 취업고민을 공유할 사람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hin (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 가정형편, 학업성취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공통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반복 조사를 통한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중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관련요인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청년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대학 현장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와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절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나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와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 경남, 경북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한 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부산 3개, 경남 2개, 경북 2개 학교에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에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는 연구목적, 자발적 참여, 응답내용의 비밀보장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참여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였고, 총 255부를 배부하여 236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23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Jeon (1974)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아가치와 자아승인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Jeo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에 관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Lee (200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으로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4개 영역이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70$ 에서 .84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였다.

3) 취업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지는 Kim (2007)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성한 40문항을 사용하였다. 성격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취업준비 스트레스, 외적 조건 및 기대 스트레스의 수준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취업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낸다. Kim (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5$ 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는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명목척도인 연령(24~27세=0; 20~23세=1), 전공학과(상경계, 인문사회계, 예체능계=0; 자연공과계=1), 주거형태(집, 기숙사, 기타=0; 자취=1), 학년(1, 3, 4학년=0; 2학년=1)은 dummy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230명의 4년제 대학생으로 남자 104명(45.2%), 여자 126명(54.8%)로 나타났고, 연령은 20~23세 166명(72.2%), 24~27세 64명(27.8%)으로 나타났다. 전공학과는 상경계열 100명(43.5%), 공과계열 58명(25.2%), 인문계열 42명(18.3%), 예체능계열 30명(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집이 94명(40.9%)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는 중이 168명(73.0%)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다' 154명(67.0%), '없다' 76명(33.0%)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4학년 82명(35.7%), 2학년 80명(34.8%)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04 (45.2)
	Female	126 (54.8)
Age (year)	20~23	166 (72.2)
	24~27	64 (27.8)
Department of major	Commerce & management	100 (43.5)
	Humanities & social science	42 (18.3)
	Art & physical	30 (13.0)
	Nature & engineering	58 (25.2)
Residential type	Rented room	68 (29.6)
	Home	94 (40.9)
	In the dormitory	66 (28.7)
	Others	2 (0.9)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22 (9.6)
	Middle	168 (73.0)
	Low	40 (17.4)
Religion	Have	154 (67.0)
	None	76 (33.0)
School year	1st	6 (2.6)
	2nd	80 (34.8)
	3rd	62 (27.0)
	4th	82 (35.7)

2.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에서 자아존중감은 3.5 ± 0.61 점, 전공만족도는 3.3 ± 0.72 점, 취업 스트레스는 3.0 ± 0.79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Self-esteem, Satisfaction in Major, and Employment Stress (N=230)

Variables	M±SD	Min	Max
Self-esteem	3.5 ± 0.61	2.30	4.90
Satisfaction in major	3.3 ± 0.72	1.50	5.00
Employment stress	3.0 ± 0.79	1.13	4.4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를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성별($t=4.34, p=.038$), 전공학과($F=9.09, p<.001$), 주거형태($F=3.65, p=.013$), 학년($F=9.3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연령($t=15.01, p<.001$), 전공학과($F=9.86, p<.001$), 학년($F=4.20, p=.006$)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 스트레스는 연령($t=8.08, p=.005$), 전공학과($F=8.92, p<.001$), 주거형태($F=3.49, p=.017$), 학년($F=7.5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전공학과에서 예체능계열이 상경대와 자연공과계열 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학년에서 2학년이 3학년과 4학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전공학과에서 예체능계열이 상경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공과계열 보다 전공만족도가 낮았고, 학년에서 2학년이 3학년과 4학년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전공학과에서 예체능계열이 상경계열, 자연공과계열 보다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고,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공과계열 보다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Table. 3).

4.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와 순상관관계($r=.59, p<.001$), 자아존중감과 취업 스트레스는 역상관관계($r=-.5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는 역상관관계($r=-.5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Table 3. Difference of Self-esteem, Satisfaction in Major, and Employment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3.6±0.67	4.34 (.038)	3.3±0.75	0.30 (.587)	2.9±0.88	2.04 (.155)
	Female	3.4±0.54		3.3±0.69		3.0±0.71	
Age (year)	20~23	3.5±0.61	3.36 (.068)	3.4±0.72	15.006 (<.001)	2.9±0.73	8.08 (.005)
	24~27	3.4±0.59		3.0±0.64		3.2±0.90	
Department of major	Commerce & management ^a	3.6±0.63	9.09 (<.001)	3.4±0.76	9.86 (<.001)	2.9±0.84	8.92 (<.001)
	Humanities & social science ^b	3.3±0.55		3.4±0.52		3.2±0.64	
	Art & physical ^c	3.0±0.32		2.7±0.46		3.5±0.61	
	Nature & engineering ^d	3.6±0.60		3.4±0.72		2.7±0.73	
Residential type	Rented room ^a	3.6±0.61	3.65 (.013)	3.4±0.82	1.30 (.274)	2.8±0.85	3.49 (.017)
	Home ^b	3.5±0.58		3.3±0.61		2.9±0.73	
	In the dormitory ^c	3.3±0.60		3.3±0.75		3.2±0.78	
	Others ^d	2.6±0.00		2.4±0.00		3.4±0.00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a	3.6±0.61	0.20 (.815)	3.0±0.81	2.61 (.076)	2.8±0.55	2.77 (.065)
	Middle ^b	3.5±0.58		3.4±0.64		2.9±0.81	
	Low ^c	3.5±0.71		3.2±0.93		3.2±0.80	
Religion	Have	3.4±0.57	3.46 (.058)	3.2±0.73	1.77 (.184)	3.0±0.79	3.70 (.056)
	None	3.6±0.66		3.4±0.69		2.8±0.78	
School year	1st ^a	3.1±0.09	9.36 (<.001)	3.2±0.47	4.20 (.006)	3.0±0.07	7.55 (<.001)
	2nd ^b	3.7±0.68		3.5±0.71		2.7±0.77	
	3rd ^c	3.4±0.57		3.2±0.69		3.0±0.89	
	4th ^d	3.3±0.48		3.2±0.71		3.2±0.66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Satisfaction in Major, and Employment Stress (N=230)

Variables	Self-esteem	Satisfaction in major	Employment stress
	r (p)	r (p)	r (p)
Self-esteem	1		
Satisfaction in major	.59 (<.001)	1	
Employment stress	-.53 (<.001)	-.52 (<.001)	1

하기 위하여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연령, 학과, 주거형태, 학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가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가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03으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취업 스트레스에

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22.52,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0.36로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t=-5.25, p<.001)과 전공만족도(t=-4.75, p<.001), 전공학과(t=-2.29, p=.023)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알아보고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아존중감은 3.5±0.61점으로 나타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Jeon (2013)의 연구에서 3.71점 보다는 낮아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성별, 전공학과, 주거형태,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Kim과 Jeon (2013)의 연구에서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과 Hwang (2013)의 연구결과에서 성별, 연령, 학년,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Table 5.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N=23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5.34	0.40		13.46	< .001
Self-esteem	-0.40	0.09	-.30	-4.45	< .001
Satisfaction in major	-0.33	0.07	-.29	-4.38	< .001
Department of major	-0.22	0.10	-.13	-2.29	.023
Age	-0.11	0.10	-.06	-1.04	.298
School year	-0.13	0.27	-.03	-0.49	.623
Residential type	-0.18	0.10	-.10	-1.88	.062
Adj. R ² = .36, F=22.52, p< .001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대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 및 진로 관련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며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하고(Rhyu & Kim, 1998),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여 취업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Shin & Cho, 2013)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의 향상과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단기간에 향상되지 않기에 대학생들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 발견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형성 수준을 먼저 파악하여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체 프로그램이나 개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3.3±0.72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도구가 동일하지 않아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O (2008)의 연구결과 2.39점보다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연령, 전공학과,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과 Hwang (2013)의 연구결과에서 성별, 학과성적,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냈고, 체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2009)의 연구에서 학년, 전공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전공만족도가 낮은 대학생은 전공학과에서 부적응 및 진로목표 부재로 자퇴 및 휴학과 같은 중도탈락 현상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대학의 정체성 및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Park, 2006). 또한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학입학시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미래의 전망 등을 고려한 전공선택을 통하여(Kim & Chung, 2005)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전공학과와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전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여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취업 스트레스는 3.0±0.79점으로 나타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과 Cho (2013)의 연구결과 2.43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스트레스는 연령, 전공학과, 주거형태,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 전공계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Kim과 Choi (2012)의 연구결과와 성별, 학년, 전공계열, 경제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Kang (2010)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취업 스트레스는 연구결과마다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 지역, 학년, 전공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지역별, 전공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교가 요구된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는 취업 스트레스와 역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과 취업 스트레스가 역상관관계를 보인 Cho와 Lee (2013), Shin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Byun & Park, 2014)와 유사하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Kang & Hwang, 2013)와 유사하다. 따라서 대

학생들의 학과적응 프로그램이나 진로상담시 현실적인 목표를 제공하여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 강화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하여(Choi & Lee, 2013)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전공만족도를 높여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가 요구된다.

연구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전공학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스트레스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 Cho와 Lee (2013)의 연구결과와 취업 스트레스에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친 Jung과 Yang (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자아존중감은 취업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Shin, 2012)으로, 전공만족도는 전공과 진로에 대한 결정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함으로써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공학과는 선행연구결과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공학과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가 차이가 난 Kang (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전공학과별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를 높여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대학생 전체에 확대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취업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으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중재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yun, E. K., & Park, S. H. (2014).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323-330.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323>
- Chang, M. Y. (2005). *The relationship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 H., & Lee, G. Y. (2006).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 Cho, M. J. (2009).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Cho, S. H., & Lee, H. Y. (2013).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2), 808-816.
<http://dx.doi.org/10.539 2/JKCA.2013.13.12.808>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Journal*, 11, 107-124.
- Jeong, M. H., & Shin, M. A.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170-177.
- Jung, Y. H., & Yang, J. H. (2013).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employment stress of the pre-service teachers who majo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3), 229-248.
- Kang, K. H. (2010).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employment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ang, Y. S., & Hwang, S. K. (2013). Correlation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7), 3301-3309.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3301>
- Kim, B. S., & Chung, T. W. (2005). Effect analyses on the employment efficacy promoting programme (EPPP) for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8(1), 206-227.
- Kim, C. S. (2012). *Effects of the pursued job valu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certified qualifications of prospective university graduates on their job search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E. J., & Choi, K. W. (2012). The effects of the depression and job-seeking stress on the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19*(2), 231-239.
- Kim, K. H., & Ha, H. S.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7-20.
- Kim, N. H. (2007). *On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stress characterized in their responses to PIT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Kim, S. K. (2003). Life stress in freshman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2), 215-237.
- Kim, S. O., & Jeon, Y. J. (2013).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4), 539-558.
<http://dx.doi.org/10.5934/kjhe.2013.22.4.539>
- Ko, J. E., Kim, M. H., Kim, E. J., Kim, H. J., Eom, J. E., Lee, H. A., et al. (2011).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Ewha Nursing, 45*, 29-44.
- Lee, J. H. (2014). *Effects of career indecision and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Lee, S. Y. (2009). *Research on major selection factor, satisfaction of major and employme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O, S. H. (2008).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with major and compromising type for vocational aspi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Park, E. H., & Lee, E. T. (2013).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jobs seek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24*(4), 5-30.
- Park, H. S., Bae, Y. J., & Jung, S. Y. (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4), 621-631.
- Park, M. J., Kim, J. H., & Jung, M. S. (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417-435.
- Park, S. M. (2006).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ntoring-function scale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8*(1), 49-57.
- Rhyu, J. H., & Kim, T. S. (1998).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job-seeking stress and stress coping mod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16*(1), 211-232.
- Shin, K. S., & Cho, I. J. (2013). The effects of job-seeking skill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in college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9*(3), 143-160.
- Shin, S. H. (2012).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2*(3), 217-225.
- Statistics Korea. (2014). *Report on wage and salary employment position statistics based on administrative data in 2012*. from <http://kostat.go.kr>